

Publication of domestic scientific journals should be promoted

Jae Min Jeong^{1,2,3*}

¹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Institute of Radiation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²Cancer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³Department of Radiation Applied Life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Journal of Radiopharmaceuticals and Molecular Probes (JRMP)는 이제 발간한지 2년차에 들어섰다. 그런데 현재로 보아서 논문 투고 숫자가 너무 적어서 JRMP의 전망은 밝다고 보기 어렵다. 학회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좋은 학술지의 발간이다. 그러나 충분한 숫자의 원고가 없다면 학술지의 발간이 어렵다.

JRMP의 어려움은 비단 JRMP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비 SCI(E) 등재 국내학술지의 공통된 사항일 것이다. 이는 주로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임용 및 승진 기준에 SCI(E) 등재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만을 점수화하여 사용하고, 또한 각종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연구비 사용 성과에 SCI(E) 등재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만을 평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따라서 SCI(E) 등재지에 속하지 못하는 국내 학술지에는 논문을 게재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논문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

과거 20세기에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연구 결과를 내기 어려웠던 시기에는 오히려 국내 학술지에 더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다가 여건이 좋아지고 좋은 연구결과를 많이 내면서 차츰 SCI(E) 등재지에 내는 숫자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내는 경우는 매우 희귀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는 마치 한글보다 중국 한자를 더 중시하여 모든 공식 문서를 한자로만 작성하던 조선시대의 사대주의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SCI(E) 등재지가 비등재지에 비하여 수준이 높고 좋은 논문을 많이 실는 것은 맞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과학자의 학술 업적이거나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학문 발전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우선 SCI(E) 학술지는 모두 영어로 작성된다. 따라서 모든 과학 논문을 영어로만 작성하게 되어 한글로 과학 논문에 관한 글을 쓰는 능력이 심각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 과거에 한글로 작성한 논문을 게재하는 국내학술지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하면 한글 논문을 올바르게 잘 쓸 수 있을까 하여 국문학자를 초청하여 한글 논문 쓰는 법에 대한 강의도 받고 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강의는 멸종되고 영어논문작성법에 관한 강의만 접할 수 있다. 한국 과학자가 한글 논문 작성법을 제대로 모른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과학 학술지 출판은 지식 산업의 중요한 분야로서 세계적으로 거대한 사업이 되고 있다. 사실 톰슨사에서 시작한 SCI(E) 사업도 학술지의 인용 지수를 평가함으로써 과학자들의 업적 및 성과를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결과적으로 과학자들이 점점 더 그 지수에 의한 평가에 매달리게 하여 눈사람처럼 저절로 더 커지는 거대한 지식 산업이 된 것이다. 이는 톰슨사에게는 꽃놀이패이겠지만, 한국의 과학자들에게는 갈수록 더 강력해지는 올라미처럼 작용하여 Impact Factor (IF)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학술지의 IF가 매년 오르락내리락 하고 과학자들의 주요 대화 내용이 그런 것인 것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

Received June 21, 2016 / Revised June 22, 2016 / Accepted June 23, 2016

Corresponding Author: Jae Min Jeong

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01 Daehak-ro, Jongno-gu, Seoul 03080, Korea
Tel: +82-2-2072-3805, Fax: +82-2-745-76, E-mail: jmjing@snu.ac.kr

Copyright © 2016, The Korean Society of Radiopharmaceuticals and Molecular Probes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발전시켜 선진국 대열 합류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발전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갈수록 중국 등 후발 주자들의 추격이 거세어지고, 공장을 지어도 고용은 별로 늘지 않으며, 공해 유발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학술지 발간과 같은 지식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인력 고용 효과도 높으며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한계에 다다른 우리나라가 발전시켜야 할 이상적인 산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국내학술지에는 논문을 내지 않고 외국 학술지에만 논문을 낸다면 중요한 지식 산업 하나를 고스란히 포기하는 꼴이 된다.

갈수록 외국 학술지 게재료가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에 어떤 학술지의 온라인 오픈 액세스 비용이 수백만 원 씩이나 하여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앞으로 이러한 비용 증가는 더 가속이 붙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과 연구에 큰 장애로 다가올 수도 있다.

Springer 같은 독일 출판사는 독일 학자의 논문을 많이 출판해 주는 경향이 있다. 또 독일 학자들도 은근히 Springer에 논문을 많이 내서 서로 도와주는 공생관계에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출판사가 있다면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논문을 출판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출판사도 우리나라 학자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SCI(E) 만 업

적으로 인정해 주는 국내 풍토 때문에 국내 학술지뿐만 아니라 이런 학술지를 출판하는 출판사까지도 동시에 클 수 있는 싹을 잘라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학술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대학교원 임용이나 승진 평가에서 현재는 거의 대부분 SCI(E) 학술지만 인정해 주지만 비 SCI(E) 국내학술지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물론 IF가 높은 학술지에 많이 논문을 출판한 경우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100% 그것으로만 평가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자 수준은 상당히 높아져서 필요한 논문 숫자의 70% 정도까지만 IF를 계산하여도 평가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머지 30%는 SCI(E) 등재여부나 IF를 따지지 않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사실 IF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 전문가에 의한 논문 내용 평가가 더 중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술지 출판 사업은 중요한 지식산업으로서 앞으로 그 시장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SCI(E)와 IF에만 매달려서 국내 학술지 출판을 포기할 경우 그 대가는 장래에 상상외로 클 수가 있으며, 따라서 국내 학술지 출판을 장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